

직접 휠체어 타고 나간 여수시의원들 “가는곳마다 아찔”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시의회~미관광장까지 경계석 등 곳곳 위험 천만

여수시의 시내버스 승강장 등 저상버스 이용을 위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의의회(의장 전창곤)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시의회 앞부터 미관광장까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13일 밝혔다.

민덕희, 나현수, 강현태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뒤 저상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차에 오르기까지 점검을 해봤다.

모든 것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췄으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 등을 하나하나 따졌다.

이들이 시의회에서 출발해 미관광장, 중부 민원출장소 등 1km 구간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첫 번째 걸림돌은 인도에 설치된 경계석이었다.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휠체어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와 사람 통행로로 구분된 인도에서 자전거와 행인을 마주칠 경우 휠체어 방향이 명확치 않아 당황스럽기도 했다.

특히 버스 승강장의 경우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진출입시 불편요소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폈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인도 침하와 깨짐 등 이동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들도 다수 발견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의원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여수시 자체 'BF(Barrier Free)' 인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5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민덕희 의원은 “휠체어 이용하면서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 작은 장애물도 훨씬 크게 다가왔다”며 “소소하지만 지속가능한 변화를 통해 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기자



여수시의의회(의장 전창곤) 무장애연구회 소속 민덕희, 나현수, 강현태 의원이 여수시 여서동 시의회 앞 버스승강장에서 저상버스 탑승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덕연동, 코로나19 나눔 물결

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생활용품 권분꾸러미 20개 전달 강남중앙교회 쌀 20kg 30포 후원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면”



순천시 덕연동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나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강남중앙교회에서 생활용품 권분꾸러미와 쌀이 전달됐다.

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오대열)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을 위해 즉석밥, 라면, 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권분꾸러미 20개를 만들어 나

누게 됐다.

오대열 센터장은 “코로나19와 태풍 등 힘든 여건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권분꾸러미를 만들면서 희망을 나누게 된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강남중앙교회(담임목사 최경학)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30포를 전달했다.

강남중앙교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작지만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덕연동은 이날 전달받은 권분꾸러미와 쌀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과 독거어르신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순천청소년수련관,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긴급돌봄 지원

방과 후 ‘누리보듬’ 추진

순천시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맞춤 돌봄이 어렵게 되자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해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감염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감염예방키트와 마스크, 간

편식(김, 통조림, 라면 등)을 가정에서 방문하여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하는 등 청소년관리에 적극적이다.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한 보호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염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다”면서 “지원해주시는 분

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과후 아카데미 ‘누리보듬’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초등학생 4~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보호·교과학습지원과 전문체험활동 등 공적인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 동구 계림1동, 복지전달 거점 역할 결식 우려 1인 가구에 ‘맞춤형 끼니해결세트’ 제공

광주 동구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순)가 관내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복지전달 거점 역

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복지관, 사랑의 식당 등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관, 원룸 거주자 등 1인 가구 120여 명에게 반찬 나눔을 하며 매주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김치, 라면,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1인 가구 맞춤형 끼니해결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김미희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